

우리 교회 제자 훈련 이렇게 한다

옥 성 석
(서울 충정교회 담임목사)

1. 글을 시작하면서

개혁주의 신앙의 노선을 지지하며 걸어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자신을 향하여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다. 그것은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는 그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가지지 못한 채 목회를 한다면 그는 한갓 샅꾼 목자에 불과할 것이다.

신앙의 뿌리로 말하면 4대째 선조로부터 그 신앙을 이어받아 왔으며, 순교적 신앙을 자랑하는 고신 교단에서 말씀의 기초를 정립하였고, 전통 있는 교회의 부교역자로 섬겨 오면서 위의 질문에 대해 자신 있는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였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붙잡고 감격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음을 고백한다.

“교회가 무엇이나?”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보면 지상 교회는 그 자체의 불완전성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개념 중 어느 하나만을 중요시하며 부각시켜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칼빈이나 루터는 말씀, 성례, 권징을 통하여 순결성을 유지하는 곳이 교회라고 보았다. 그러나 바빙크(J. H. Bavinck)는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반면에 크레머(H. Kraemer)는 “교회가 온 세계를 위하여 세계 안으로 보내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회는 곧 선교라고 말한다. 또한 가톨릭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한스 쿵(Hans Küng)은 교회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이다.

물론 이러한 정의들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들을 통하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코끼리의 한 부분을 만

진 후 그것이 꼬끼리의 전부인 양 단정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교회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산 위의 교회와 산 아래의 교회, 주일 교회와 옛새 교회”가 있다. 이 양면의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한다면 주님이 피 흘리시어 세우신 교회의 본질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이러한 교회를 섬겨야 할 목회자들이 서야 할 곳은 어디인가?

목회자는 교회가 가진 양면성의 중간 위치에 서야 한다. 어느 한쪽만 강조하는 우를 범치 말아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한쪽 부분으로 치우쳐 최악된 세상의 파도에 침몰하지 않도록 선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야 한다.

이 양면성의 중간 위치가 과연 어디일까? 바로 우리 주님이 서 계셨던 장소이다. 땅 위에 3년 동안 계시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셨던 바로 그 장소에 오늘 우리도 서야 한다. 예수님 곁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무리요, 또 하나는 제자들이다. 예수님은 이 무리에 대해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대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많은 무리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이 상으로 특별히 부르사 자기를 따르게 하신 12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 주시며 그들을 양육하셨다.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저들에게만 알려 주셨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이 서셨던 장소가 어디이며, 오늘 교회와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 무리만을 향한 목회나 제자만을 향한 목회가 아니라 이 양면을 균형있게 잘 감당할 때에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가 오늘 이 땅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리라 확신한다.

3. 충정교회는 ...

벌써 48년의 연륜을 가진 장년 교회이다. 아는 분들은 충정교회에 대

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참 모습을 일구어 내기 위해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전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한쪽으로만 치우쳐 약하여진 부분을 채우는 일을 위하여 진력하고 있다. 이 약한 부분을 채우는 일이란 곧 제자 훈련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를 말씀으로 양육해 내어 그들을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로 세우는 일이다. 이 일을 위하여 지난 3년 동안 심혈을 쏟아 오고 있다.

처음에는 이런 사역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훈련을 받을 마땅한 자원들도 부족하여 애태우기도 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생활이 바뀌는 것을 다른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함께 도전을 받고 제자 훈련 사역에 대해 인식들을 새롭게 하고 있다. 이제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어디서나 제자 훈련에 관한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이 제자 훈련 사역을 하면서 나는 몇 가지의 원칙을 마음에 세워 놓고 있다.

(1) 소그룹이란 환경을 대단히 중요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교육은 선생과 학생, 그리고 교재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요소에 환경이라는 제 4 요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 주셨다. 사람은 돼지가 아니다. 그러므로 많은 무리를 다 제자로 만들 수는 없다. 제자 훈련을 실시는 하되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제자로 만들어 내어야 한다는 목회자의 강박 관념이다.

제자 훈련이란 '씩어질 수 있는 한 알의 밀알' (요 12:24)을 만드는 작업이요 "장차 천을 이룰 작은 자" (사 60:22)를 다듬는 작업이다.

(2) 건전한 리더십을 창출해 내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평신도들은 수동적이며, 소극적이다. 그래서인지 교회의 조그마한 일까지도 일일이 교역자와 의논을 해야만 마음을 놓는다. 이러한 이유는 지금까지의 교회 교육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목회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으므로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알

지 못하였기 때문이요, 늘 강단 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싫으나 좋으나 받아들이는 입장에 젖어 왔기 때문이다.

제자 훈련은 교회를 섬길 중간 리더들을 만들어 허리 부분을 능동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자 훈련을 통해 그들이 건전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3) 귀납법적 성경 공부의 방법으로 제자 훈련을 이끌어 가는 일이다

목회자는 제자 훈련을 통해 그들 스스로 성경에서 보화를 캐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회자는 그렇게 도와주는 것보다 자신이 발견한 보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주는 일에 더욱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연역적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자 훈련 시간에는 훈련 받는 사람들의 눈과 관점을 인정해 줌으로 그들 스스로 성경을 대하고, 성경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도록 귀납법적으로 훈련을 이끌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목회자는 ① 침묵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독일 속담에 “침묵하는 기술은 말하는 기술 만큼이나 위대하다.”는 말이 있다. 적어도 목회자는 30초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K. M. Narramore) ②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한다. 좋은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은 마치 산꼭대기에서 돌을 하나 굴리는 것과 같다. 이 돌이 수많은 다른 돌들을 굴러가게 하는 것처럼 말이다.

4. 제자 훈련의 현장

총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것은 '89년 6월이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까지 제자 훈련에 모범적인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시었으며,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시간이 흐르면서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제자 훈련을 위한 기초 정지 작업을 하는 기간으로 잡았다.

강단에서,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성숙, 즉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다. 감사하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 교회의 장로님들을 위시한 중진들의 긍정

적인 협조와 관심이 큰 힘이 되었다.

(1) 제자 훈련의 시작

해를 넘기어 '90년 1월부터 제자 훈련생을 모집하는 광고를 공개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 지원하는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했다. 그 중에서나마 한 사람은 필자의 아내였다. 모두들 관심은 있었으나 감히 훈련을 받겠노라고 나서는 용기가 부족했는지도 모른다. 모집 기간이 지난 후 꼭 이 훈련에 참여하여야 할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면서 함께 훈련을 받자고 이끌었다. 이렇게 하여 제 1기 여 제자반에 등록된 사람이 12명이었다. 물론 나이는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2) 제자 훈련의 운영

제자 훈련은 물론 교회의 사정과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에 의해 다듬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나는 이 12명에게 일주일 중 가장 귀한 시간을 할애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30분 정도씩 교회와 각 가정을 번갈아 가며 모임을 가졌다.

처음에는 서로가 대단히 어색해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친형제 이상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한 자신들의 마음을 쏟아 놓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우선 순위를 제자반 모임에 두기 시작하였고 이 모임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 듯했다.

제자 훈련에서 리더인 필자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 토론한 후, 해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도자의 위치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3) 제자 훈련의 과정과 교재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성화의 길, 성숙의 과정을 밟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좀 부족하지만 교회를 섬기면서 받는 은혜도 있기에 제자 훈련도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약 2년 기간을 훈련 기간으로 가진다.

전반부는 말씀의 기초를 다지는 의미에서 '제자반'이라 부르고 후반기 1년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기에 '사역반'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 사역반을 마친 사람들은 교회의 각 분야에서 배운 말씀에 기초하여 다락방의 순장 등으로 섬기도록 하였다.

이 제자 훈련에 사용하는 교재는 사랑의 교회에서 사용하는 「평신도를 깨운다」는 제자 훈련 및 사역 훈련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제자 훈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무슨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냐고 질문해 오는 경우가 많다. 사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소그룹 모임을 위한 교재들이 너무나 많이 진열되어 있기에 어떤 교재를 선택 하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재가 아니고 그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는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지도자가 어떤 자세,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그룹을 인도해 가느냐가 그 제자 훈련의 성패를 결정짓는다.

지금은 제 1기 졸업생을 배출하고 제 2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남자 제자반, 여자 제자반 등이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있다.

제자 훈련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넣어 주는 훈련이 아니다. 배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 역사함으로 그들이 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따라 실천함으로 신앙과 생활의 일치로 목표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이 단순히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기에 뜻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 분에게 고정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5. 말을 맺으면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은 '교회가 교회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세운 목회자들이 정말 서야 할 바른 위치에서 서서 교회를 섬기며, 주신 사명만을 바로 감당하기를 소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가 과연 무엇이며, 목회자는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대중이란 숫자놀음에 유혹을 받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내는 교회, 이를 위하여 오늘도 골방에서 몇 명을 붙잡고 씨름하는 주의 종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